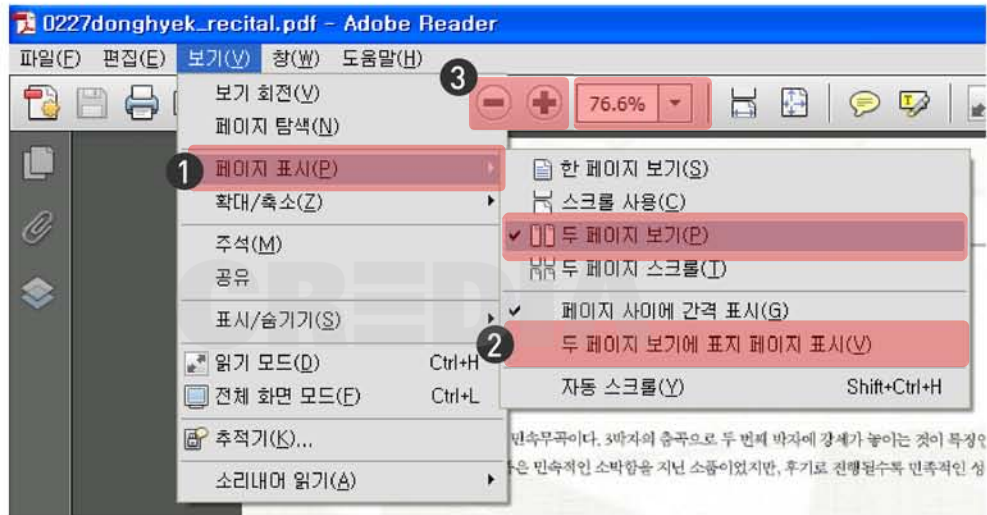


CREEDIA는 보다 나은 서비스를 위하여, 공연의 프로그램북을 온라인으로 제공합니다.
아래 안내와 같이 설정해서 보시면 더욱 편하게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Guide 1 프로그램북 2페이지씩 보기
(프로그램북이 한 페이지씩 보일 경우)



- ① PDF reader 메뉴바_보기_페이지표시_두 페이지 보기 선택
- ② 메뉴바_보기_페이지표시_두 페이지 보기에 표지 페이지 표시 선택 해제
- ③ 원본 사이즈로 보기
 확대 및 축소는 -, + 버튼 클릭

Guide 2 프로그램북이 2페이지씩 보일 경우
다른 설정 없이 보셔도 편안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Sarah Chang

&
CREDIA

Julio Elizalde

15만 공연애호가들의 선택 Club BALCONY가 제안하는 품격있는 문화예술의 경험과 서비스

클럽발코니와 함께 감동의 문화생활을 설계해보세요!

JOIN Club BALCONY

15만 공연애호가들의 선택 (예매고수의 노하우)
크레디아 기획공연 5~30% 상시 할인
나만의 비서! 티켓 오픈 무료 SMS 서비스
문화애호가의 필수품, Club BALCONY 매거진 무료우송
모바일 회원카드 확인 후 크레디아 기획공연 프로그램북 증정
크레디아 기획공연 단독 선예매 및 예매, 취소, 티켓 배송 수수료 면제
만료 후 재가입 시 할인 혜택

JOIN CIELOS Club

CIELOS 회원만을 위한 프라이빗 음악회, 전시회, лек처 문화행사 무료초대 (동반1인 포함)
CREDIA의 엄선된 공연 패키지 30~50% 할인제공 및 좌석우위
Club BALCONY 평생회원 자격

Upcoming Programs

클럽발코니 여행 프로그램

빈 필하모닉과 함께 떠나는 유럽 크루즈 10박 12일 | 2020/ 9/ 19(토)~30(수)
2020 통영국제음악제 문화여행 1박 2일 | 2020/ 3/ 28(토)~29(일)

클럽발코니 лек처 프로그램

술술클래식 лек처 <내 인생의 클래식> on Stradeum
• 2020/ 1/ 11(토) 신년특집 <새 출발을 위한 음악들>
• 2020/ 2/ 15(토) 힐링클래식 <설렘 가득한 봄날>

클럽발코니 아트데이

영화 <피아니스트의 전설> 초대 이벤트 | 2020/ 1/ 2(목) 예정



가입문의 1577-5266

CREDIA

Sarah Chang

& Julio Elizalde in Recital

사라 장
바이올린 리사이틀

2019년 12월 29일 (일) 오후 5시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5PM Sunday, December 29, 2019

Concert Hall, Seoul Arts Center

바이올린, 사라 장


Sarah Chang, Violin

피아노, 훌리오 엘리잘데

Julio Elizalde, Piano

주최 **CREDIA MUSIC & ARTISTS**

후원 **KOREAN AIR 50th**



“사라 장은 경이롭다. 그녀의 풍부하고 아름다운 소리와 흠잡을 데 없는 연주,
절도 있는 표현은 그녀의 음악을 완벽하게 한다.
한 곡으로 모든 것을 들을 수 있고, 그 모든 것을 들을만한 가치가 있다.”

- 뉴욕 타임즈 -

“사라 장은 내가 들어본 가장 뛰어나고 완벽한, 최고의 이상적인 바이올리니스트이다.”

- 故 예후디 메뉴인 -

바르톡 1881-1945
Hungary

B. Bartók

루마니아 민속 무곡, 실뢰시번호 56

Romanian Folk Dances, Sz. 56

- I. Jocul cu bâță (Stick Dance) 막대춤
- II. Brâul (Sash Dance) 허리띠 춤
- III. Pe loc (In One Spot) 한 자리에서
- IV. Buciumeana (Dance from Bucsum) 호른 춤
- V. Poarga Românească (Romanian Polka) 루마니아 폴카
- VI. Mărunțel (Fast Dance) 빠른 춤

프랑크 1822-1890
France

C. Franck

바이올린 소나타 가장조, 모어번호 8

Violin Sonata in A Major, M. 8

- I. Allegretto ben moderato 조금 빠르게, 충분히 온화하게
- II. Allegro 빠르게
- III. Recitativo-Fantasia: Ben moderato 레치타티보-판타지아: 충분히 온화하게
- IV. Allegretto poco mosso 조금 빠르게, 조금 활동적으로

INTERMISSION

드보르작 1841-1904
Czechoslovakia

A. Dvořák

로망스 바단조, 작품번호 11

Romance in f minor, Op. 11

바치니 1818-1897
Italia

A. Bazzini

고블린의 춤, 작품번호 25

The Dance of the Goblins, Op. 25

엘가 1857-1934
England

E. Elgar

사랑의 인사 마장조, 작품번호 12

Salut d'amour in E Major, Op. 12

라벨 1875-1937
France

M. Ravel

치간느, 마르나번호 76

Tzigane, M. 76

본 공연의 프로그램은 연주자의 사정에 의해 사전 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음악회가 시작되기 전에 휴대폰을 꺼 주시기 바랍니다.
음악회 중에는 일체의 촬영 및 녹음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This Program is subject to change without any notice.
Before the concert begins, please switch off your mobile phones and electronic devices.
Recording and photographing are not allowed during the concert.

벨라 바르톡
루마니아 민속 무곡
실려시번호 56

Béla Bartók
Romanian Folk Dances
Sz. 56

헝가리를 대표하는 작곡가 벨라 바르톡(1881-1945)은 자국뿐만 아니라 주변국의 민속음악도 열정적으로 수집하고 이를 기반으로 작품을 발표하여, 오늘날 중족음악연구의 선구자로 추앙받고 있다. 특히 헝가리와 인접한 루마니아의 트란실바니아 지역은 헝가리인들도 많이 살았기 때문에 바르톡이 특히 주목했던 지역으로, 오늘 첫 곡으로 연주되는 <루마니아 민속 무곡>(1915)은 그 돋보이는 결과 중 하나이다. 바르톡은 이 작품을 위해 트란실바니아 지방의 민속음악 중에서 노래보다는 피들이나 플루트 등 기악으로 연주되는 보다 복잡한 선율을 택했다. 이 선율들은 모두 오래된 선법 체계를 따르고 있으며, 아라비아의 영향을 받기도 했다. 바르톡은 이러한 특징들을 살려 이전의 작품들보다도 자유롭게 화성을 붙였다.

1곡 ‘막대춤’은 아티큘레이션이 명확한 힘 있는 선율이 이목을 집중시키며, 피아노도 도약과 악센트, 스타카토 등 다양한 음악적 표정을 들려준다. 2곡 ‘허리띠 춤’은 소박한 선율과 밀고 당기는 리듬이 돋보인다. 3곡 ‘한 자리에서’는 아라비아의 영향을 받은 증2도 음정이 이국적인 특징을 강조한다. 하모닉스를 사용한 바이올린의 고음 선율은 요염하게 움직인다. 4곡 ‘호른 춤’도 아라비아의 영향이 보이며, 선율은 부드럽고 매혹적이다. 5곡 ‘루마니아 폴카’는 어린이 무곡으로, 강한 터치와 스타카토, 꾸밈음으로 귀엽고 활발한 분위기를 복돋운다. 잦은 변화에 아이들의 예측불허한 모습이 겹쳐진다. 6곡 ‘빠른 춤’은 당김음 리듬의 반주 위에 선율이 빠르게 움직이며, 열정적이고 화려하게 마친다.

세자르 프랑크
바이올린 소나타 가장조
모어번호 8

César Franck
Violin Sonata in A Major
M. 8

벨기에 출신으로 프랑스에서 활동했던 세자르 프랑크(1822-1890)는 ‘심포닉 오르간’이라고 불리는 프랑스 낭만 오르간의 선구자로 큰 명성을 얻었다. 하지만 오늘날 가장 자주 연주되는 그의 작품은 <바이올린 소나타 가장조>(1886)로서, 작곡가 자신도 매우 만족했던 곡 중 하나였다. 이 곡은 당대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였던 외젠 이자이의 결혼 선물로 작곡되었으며, 1886년 9월 결혼식 당일에 결혼식 하객을 관객으로 초연되었다. 프랑크는 비록 4년 후에 세상을 떠났지만, 이자이는 초연 이후 40년 동안 이 작품을 자신의 레퍼토리로서 연주하여 이 작품을 널리 알렸다.

<바이올린 소나타>에는 프랑크의 중요한 음악 어법인 순환 형식이 적용되어 있다. 순환 형식이란 한 주제를 각 악장에서 변형된 형태로 재사용하여 곡 전체에 높은 통일성을 유지하면서 극적인 스토리를 만드는 형식으로, 본래 리스트가 사용하던 진행 양식을 발전시킨 것이다. 1악장은 여유로운

가운데 신비가 감돈다면, 2악장은 폭풍이 몰아치듯 거칠게 질주한다. 3악장은 다시 차분하고 명상적인 음조로 우아하고 자유롭게 흐르며, 4악장은 4분음표로 또박또박 진행되는 리듬 위에 카논 형식(돌림 노래)으로 진행한다. 그러다 마지막에 가까워질수록 내재된 정열을 과감하게 표현하여 대단원에 이르며, 그 에너지로 강렬하게 마무리한다.

안토닌 드보르작

로망스 바단조

작품번호 11

Antonín Dvořák

Romance in f minor

Op. 11

체코의 낭만음악을 대표하는 작곡가 안토닌 드보르작(1841-1904)은 30대 후반 이후 국제적으로 알려지기 전까지는 무명에 가까웠으며, 이전의 초기 작품들은 초연 기회조차 얻기 어려웠다. <현악사중주 5번>(1873)도 현악사중주의 특징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초연을 거절당했고, 드보르작은 화가 치밀어올라 표지를 뜯어버렸다. 이 곡의 초연은 사후 1930년에야 이루어졌지만, 2악장 ‘느리게, 조금 빠르게 들리도록 운동성 있게’만은 <로망스 바단조>라는 이름으로 재탄생되어 생전에 연주되었다. 이 작품의 완성 시기는 불분명한데, 원곡이 작곡된 1873년 9월과 초연된 1877년 12월 9일 사이에 이루어졌을 것이다.

사실 <로망스>는 원곡을 단순히 바이올린과 관현악으로 편곡한 것은 아니다. 드보르작은 두 개의 새로운 주제를 넣어 음악적 내용을 보다 풍부하게 확장했으며, 세 부분의 가요 형식으로 구성함으로써 온전한 독주곡으로 발전시켰다. 오늘날 원곡은 거의 잊혔지만, <로망스>는 감성적 표현이 짙은 아름다운 선율과 다양한 표정으로 인간적인 공감을 불러일으키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안토니오 바치니

고블린의 춤

작품번호 25

Antonio Bazzini

The Dance of the Goblins

Op. 25

안토니오 바치니(1818-1897)는 이탈리아의 비르투오소 바이올리니스트이자 작곡가로, 18세에 파가니니를 만난 이후 그로부터 큰 영향을 받았다. 그는 작곡가로서도 슈만과 멘델스존의 호평을 받았으며, 후년에는 연주보다는 작곡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며 교향시, 협주곡, 실내악, 오페라, 칸타타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남겼다. 오늘날에는 실내악곡들이 주로 연주되고 있는데, 특히 <고블린의 춤>(1852)이 화려한 쇼피르로서 자주 연주되고 있다. 이 곡에서는 이중주법을 빠르게 연주하고, 왼손의 네 손가락을 활용하여 이중주법으로 하모닉스를 만들며, 왼손으로 피치카토를 연주하는 등, 고난도의 화려한 연주기교가 요구된다.

에드워드 엘가
사랑의 인사 마장조
작품번호 12

Edward Elgar
Salut d'amour in E Major
Op. 12

1888년, 영국의 낭만주의자 에드워드 엘가(1857-1934)는 당시 연인이었던 앨리스로부터 선물로 받은 시를 읽고 그 감상을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소품 <사랑의 인사>에 담았다. 이 곡에는 설렘 가득한 마음이 담긴 반주에, 사랑을 속삭이는 아름다운 선율이 흐른다. 이 곡이 그의 사랑에 도움이 되었을까? 엘가는 얼마 후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다. “내 사랑 A와 약혼했다.” 오늘날 ‘엘가’는 몰라도 누구나 <사랑의 인사>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음악이 되었다.

모리스 라벨
치간느, 마르나번호 76

Maurice Ravel
Tzigane, M. 76

‘치간느’는 ‘집시’를 뜻하는 프랑스어로, 모리스 라벨(1875-1937)은 <치간느>(1924)에 대해 헝가리 광시곡 스타일로서 바이올린의 묘기를 위해 쓴 곡이라고 말했다. 그런 만큼 이 곡에는 집시 스타일의 거친 멜로디와 고난도의 기교가 결합되어 있다. 그런데 라벨은 집시 음악의 효과를 얻기 위해 ‘뤼테알’(luthéal)이 설치된 피아노를 원했다. 뤼테알은 피아노 현에 가볍게 닿아 민속악기인 침발롬이나 하프시코드 등과 유사한 음향을 만드는 장치로, 1919년에 특허를 받았다. 하지만 거의 사용되지 않아 곧 사라졌기 때문에, 기존의 피아노로 연주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최근에는 뤼테알을 복원하여 연주하는 경우가 드물게 있다.

<치간느>는 헝가리 무곡인 차르다시(csárdás) 형식으로, 느린 ‘라슈’(lassú)로 시작하여 빠르고 격정적인 ‘프리시’(friss)로 이어진다. 우선 무반주 바이올린이 카덴차 스타일로 라슈 부분을 연주한다. 이 부분에서 레치타티보 풍의 거칠고 기교적인 제1주제와 부드러운 제2주제가 등장한다. 바이올린의 트릴과 피아노의 분산화음이 등장하면서 불안하고 초조한 분위기로 고조된 후 프리슈로 넘어간다. 라슈에서 사용된 제2주제가 빠르고 리드미컬하게 변형되어 재등장하며, 이 주제에 의한 여덟 개의 변주곡이 이어진다.

글 | 송주호 (음악 칼럼니스트)



빈 필하모닉과 함께 떠나는 유럽 크루즈 10박 12일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함께 동승하며
그리스와 이탈리아에서 펼쳐지는
음악과 휴식을 함께 하는 꿈 같은 여행.
지상과 선상을 오고 가는 특별한 여정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여행 일자 : 2020년 9월 19일(토) ~ 30일(수) (10박 12일)
- 여행지 : 마요르카(스페인) - 나폴리(이탈리아) - 팔레르모 - 발레타(몰타) - 산토리니(그리스) - 아테네 - 헤라클리온(크레타)
- 상품가 : 1,680 만원 (현금가, 발코니캐빈 기준)
인천 - 마요르카 왕복 항공료 별도

PROGRAM

- [공연1] 빈 필하모닉 & 헤르베르트 블롬슈테트 (협연 : 에뮌 브론프만)
[공연2] 빈 필하모닉 & 헤르베르트 블롬슈테트 / 아테네 헤로도테스 아티쿠스 야외극장
[공연3] 안드레아스 사거 & 리디아 바이흐 리사이틀 / 나폴리 산 카를로 극장
[공연4] 오페라 <코지 판 투테> / 팔레르모 마시모 극장
[공연5] 베이스-바리톤 여원 슈로트 리사이틀 (선상 공연)
[공연6] 알렉세이 이구데스만 바이올린 리사이틀 (선상 공연)
[공연7] 빈 필 체임버 콘서트 (선상 공연)

빈 필하모닉 공개 리허설
연주자와의 만남 및 사인회, 책차

- * 음악평론가 유정우 전 일정 동행 예정
- * 본 여행일정과 프로그램은 아티스트 또는 현지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자세한 안내사항은 계속 업데이트 됩니다.

다양한 기항지와 선상에서 펼쳐지는 화려한 음악여행
빈 필하모닉과 세계 최정상 아티스트가 함께 하는 선상음악회와 오픈 리허설을 비롯,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산 카를로 극장과 마시모 극장, 고대의 역사와 신비를 간직한 아테네 아크로폴리스 헤로도테스 아티쿠스 야외극장 기항지 콘서트까지 더욱 풍성한 음악 프로그램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음악평론가 유정우의 생생한 클래식 이야기
홍부외과 전문의이자 클래식 음악평론가로 활동하는 유정우가 전 일정 동행하며 유럽의 음악, 역사, 그리스 신화를 아우르는 깊고 넓은 지식의 인문학 강의를 생생하게 들려줄 예정입니다.



바이올리니스트
사라 장

Sarah Chang
Violinist



© 2011 V&A

세계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 중 하나로 손꼽히는 사라 장은 8살에 뉴욕 필하모닉과 데뷔 무대를 가져 세상을 놀라게 했으며, 이후 20년 넘게 세계적인 오케스트라와 지휘자, 그리고 연주자들과 함께 공연 해오고 있다.

최근 미국 활동으로는 뉴욕 필하모닉, LA 필하모닉,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 샌프란시스코 심포니, 시카고 심포니, 내셔널 심포니 오케스트라, 보스턴 심포니 및 클리블랜드 심포니와의 협연이 있으며 할리우드 볼 및 탕글우드 페스티벌, 라비니아 페스티벌, 아스펜 뮤직 페스티벌 등에서도 연주한 바 있다. 사라 장은 미국을 넘어서 전 세계를 무대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데, 유럽에서는 베를린 필하모닉, 빈 필하모닉 및 주요 런던 오케스트라와 협연하였으며, 오스트리아,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스위스, 영국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호주 및 뉴질랜드에서도 연주회를 선보이고 있다. 또한 핀커스 주커만, 아이작 스톤, 레이프 오베 안스네스, 예뎀 브론프만, 요요마, 볼프강 자발리쉬, 베를린 필하모닉 단원 등 세계 거장들과의 챔버 연주 협연 등 폭넓은 음악 활동을 하고 있다.

사라 장은 2009년 그녀의 20번째 EMI 음반으로 지휘자 쿠르트 마주어와 드레스덴 필하모닉 협연으로 브람스 및 브루흐 바이올린 협주곡을 발매하여 큰 호평을 받았다. 또한 그녀의 비발디 사계 음반은 발매 후 국제적인 찬사를 이끌어냈는데, BBC 뮤직 매거진이 “그녀의 음반 중 이보다 더 훌륭한 음반은 없었다”라고 평한 바 있다. 이외에도 사이먼 래틀 경의 지휘로 베를린 필과 협연한 프로코피예프 바이올린 협주곡 1번과 쇼스타코비치 협주곡 1번 앨범과 플라시도 도밍고가 지휘한 베를린 필과의 바이올린 소품집 ‘불과 얼음’, 그리고 콜린 데이비스 지휘의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함께 연주한 드보르작 협주곡 음반 외에도 피아니스트 레이프 오베 안스네스, 라르스 포그트를 포함하여 여러 연주자들과 실내악 및 소나타 음반들을 발매하였다.

사라 장은 2006년 뉴스위크 매거진에서 “리더십이 강한 20인의 여성”으로 선정된 바 있으며, 사회적 성취와 활동을 인정받아 2008년에는 세계 경제 포럼(WEF) 선정의 영 글로벌 리더로 뽑혔다.

2005년 예일대학교에서 스프라그 홀에 사라 장의 이름을 딴 객석을 마련했으며, 2012년에는 하버드 대학교로부터 “뛰어난 예술 리더십 상”을 수상했다. 2004년도에는 아테네 올림픽의 뉴욕 성화 봉송 주자로 선정되었으며, 같은 달 할리우드 볼 명예의 전당에 최연소로 이름을 올렸다. 이외에도 사라 장의 화려한 수상 내역 중 몇 개를 들자면 에버리 피셔 상, 그라모폰의 “올해의 젊은 음악가상”, 독일의 “에코 음반상”, 런던 인터내셔널 클래식 뮤직 어워즈의 “올해의 신인상”, 이탈리아 시에나의 “국제 키지아나 음악 아카데미상”, 대한민국 “난파상” 등이 있으며 2011년부터는 미국 예술 대사로도 임명되었다.

Sarah Chang is recognized as one of the world's great violinists. Since her debut with the New York Philharmonic at the age of 8 she has performed with the greatest orchestras, conductors and accompanists internationally in a career spanning more than two decades.

Highlights from Ms. Chang's recent seasons, have included performances with such North American orchestras as the New York Philharmonic, Los Angeles Philharmonic, Philadelphia Orchestra, Chicago Symphony, National Symphony Orchestra, Boston Symphony, and Cleveland Symphony. She has also performed at the Hollywood Bowl and at the Tanglewood, Ravinia, and Aspen Music Festivals, among others. With a career that has blossomed internationally, her European engagements have included performances with the Berlin Philharmonic, Vienna Philharmonic, and all the principal London Orchestras. She performs regularly in Austria, France, Germany, Italy, Spain, Switzerland, and the United Kingdom, and her engagements in Asia have brought her to audiences in China, Japan, Korea, Malaysia, Singapore, Australia, and New Zealand. As an accomplished recital and chamber musician, Ms. Chang regularly travels the world, performing with such artists as Pinchas Zukerman, Yefim Bronfman, Leif Ove Andsnes, Yo-Yo Ma, Isaac Stern, Wolfgang Sawallisch, and members of the Berlin Philharmonic Orchestra.

Ms. Chang's most recent recording for EMI Classics, performances of Brahms and Bruch violin concertos with Kurt Masur and the Dresdner Philharmonic was received to excellent critical and popular acclaim and was her 20th album for the label. Her recording of Vivaldi's Four Seasons attracted international commendation, with BBC Music Magazine stating: "She has never made a finer recording." She has also recorded Prokofiev Violin Concerto No.1 and Shostakovich Violin Concerto No.1 live with the Berliner Philharmoniker under the baton of Sir Simon Rattle, Fire and Ice, an album of popular shorter works for violin and orchestra with Placido Domingo conducting the Berliner Philharmoniker, the Dvorak concerto with the London Symphony Orchestra and Sir Colin Davis, as well as several chamber music and sonata discs with artists including pianists Leif Ove Andsnes and Lars Vogt.

In 2006, Ms. Chang was honored as one of 20 Top Women in Newsweek Magazine's "Women and Leadership, 20 Powerful Women Take Charge" issue. In March 2008, Ms. Chang was honored as a Young Global Leader for 2008 by the World Economic Forum (WEF) for her professional achievements, commitment to society and potential in shaping the future of the world.

In 2005, Yale University dedicated a chair in Sprague Hall in Sarah Chang's name and in 2012 Harvard University gave her the 'Distinguished Leadership in the Arts Award'. For the June 2004 Olympic games, she was given the honor of running with the Olympic Torch in New York, and that same month, became the youngest person ever to receive the Hollywood Bowl's Hall of Fame award. Also in 2004, Ms. Chang was awarded the Internazionale Accademia Musicale Chigiana Prize in Sienna, Italy. She is a past recipient of the Avery Fisher Prize, Gramophone's "Young Artist of the Year" award, Germany's "Echo" Schallplattenpreis, "Newcomer of the Year" honors at the International Classical Music Awards in London, and Korea's "Nan Pa" award. Ms. Chang has been named the US Embassy's Artistic Ambassador from 2011.



‘바이올린을 든 음악천사’
사라 장(장영주) 대표 앨범!!!



내한공연 프로그램
프랑크 <바이올린 소나타> 수록앨범!

프랑크, 라벨, 생상 : 바이올린 소나타
 사라 장 바이올린, 라르스 포그트 피아노 이 세 작품의
 고유한 개성을 최고의 연주로 뽑아낸다!



바이올린과 오케스트라를 위한 작품집
<불과 얼음>

사라사테: <카르멘 환타지>
 마스네: <타이스의 명상곡>
 베토벤: <로망스>, 바흐: <G선상의 아리아>
 사라사테: <치고이네르바이젠>
 사라 장 바이올린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플라시도 도밍고 지휘 뽑아낸다!



비발디: 사계
 (봄, 여름, 가을, 겨울 전곡)

사라 장 바이올린, 지휘
 오르페우스 체임버 오케스트라



브람스, 브루흐: <바이올린 협주곡>

사라 장 바이올린
 드레스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쿠르트 마주어 지휘 뽑아낸다!

피아니스트
홀리오 엘리잘데

Julio Elizalde
Pianist

시애틀 타임즈로부터 “강렬한 예술성과 파워”라고 찬사 받은 재능 있는 미국의 피아니스트 홀리오 엘리잘데는 솔리스트, 실내악 뮤지션, 예술 행정가, 교육자이자 큐레이터로 다방면에서 활동하고 있는 다재다능한 아티스트이다. 그는 미국, 유럽,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의 수많은 주요 공연장에서 공연하며 대중과 비평가들의 찬사를 받았다. 2014년부터는 워싱턴주 시애틀 인근에서 개최되는 올림픽 뮤직 페스티벌의 예술 감독을 역임하고 있다.

홀리오는 우리 시대의 대표적인 연주자들과 함께 공연해왔는데,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인 사라 장과 레이 첸, 이차크 펄만, 테디 아브람스, 앤 맨슨 등과 함께 세계투어를 해왔다. 또한 첼리스트 파블로 페란데스와 키안 솔타니, 바이올리니스트 파멜라 프랭크, 작곡가 오스발도 골리호프, 스티븐 허프, 바리톤 윌리엄 샤프 그리고 줄리어드 스트링 콰르텟, 클리블랜드 스트링 콰르텟, 타카치 스트링 콰르텟, 크로노스 스트링 콰르텟, 브렌타노 스트링 콰르텟 등과 함께 공연했다.

홀리오는 몬트리올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공동 악장인 앤드류 완, 그리고 뉴욕 필하모닉의 첼리스트 패트릭 지와 함께 뉴 트리오(New Trio)의 창단 멤버이다. 뉴 트리오는 피쇼프 콜먼 미국 챔버 뮤직 콩쿠르에서 대상을, 하버드 뮤지컬 협회로부터 권위 있는 아더 W. 풋 상을 수상했다. 뉴 트리오 는 대통령 빌 클린턴, 국무장관인 콘돌리자 라이스와 헨리 키신저, 그리고 매사추세츠 주의 상원의원이었던 테드 케네디 등 미국의 유력 정치인들 앞에서 공연하였다. 또한 아카데미상 수상자인 하워드 쇼어가 작곡한 2013년 영화 ‘지미 P(Jimmy P)’의 사운드트랙에 참여했다.

홀리오는 교육가로서도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2013년도에는 워싱턴 주 터코마의 퓨젯 사운드 대학교에서 객원 교수로 피아노를 가르쳤으며, 이후 미국 주요 음악원과 대학교에서 피아노와 실내악 마스터클래스를 개최하기도 했다. 또한 옐로우 반, 타오스, 카라무르, 보든, 크나이젤 홀, 그리고 웨스트 뮤직 아카데미 등 다양한 여름 뮤직 페스티벌에도 참여해왔으며, 2012년에는 피쇼프 미국 챔버 뮤직 콩쿠르의 최연소 심사위원으로 선정되었다.

샌프란시스코 출신인 홀리오는 샌프란시스코 음악원에서 폴 허쉬를 사사하였고, 뉴욕 줄리어드 음악원에서 제롬 로웬탈, 요셉 칼리히슈타인, 그리고 로버트 맥도날드를 사사하고 석사와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Praised as a musician of "compelling artistry and power" by The Seattle Times, the gifted American pianist Julio Elizalde is a multifaceted artist who enjoys a versatile career as soloist, chamber musician, artistic administrator, educator, and curator. He has performed in many of the major music centers throughout the United States, Europe, Asia, and Latin America to popular and critical acclaim. Since 2014, he has served as the Artistic Director of the Olympic Music Festival near Seattle, Washington.

Julio Elizalde has appeared with many of the leading artists of our time. He tours internationally with world-renowned violinists Sarah Chang and Ray Chen and has performed alongside conductors Itzhak Perlman, Teddy Abrams, and Anne Manson. He has collaborated with artists such as cellists Pablo Ferrández and Kian Soltani; violinist Pamela Frank; composers Osvaldo Golijov and Stephen Hough; baritone William Sharp; and members of the Juilliard, Cleveland, Takács, Kronos, and Brentano string quartets.

Julio is a founding member of the New Trio with violinist Andrew Wan, co-concertmaster of the Montréal Symphony and Patrick Jee, cellist of the New York Philharmonic. The New Trio won grand prizes at the Fischhoff and Coleman National Chamber Music Competitions and was awarded the Harvard Musical Association's prestigious Arthur W. Foote Prize. As part of the New Trio, Julio has performed for leading American politicians such as President Bill Clinton, Secretaries of State Condoleezza Rice and Henry Kissinger, and the late Massachusetts Senator Ted Kennedy. He was a featured performer on the soundtrack of the 2013 film *Jimmy P*, composed by Academy Award-winner Howard Shore.

Julio is a passionately active educator. In 2013, he served as visiting professor of piano at the University of Puget Sound in Tacoma, Washington and has since given piano and chamber music masterclasses throughout the United States at major conservatories and universities. He has also appeared at various summer music festivals including Yellow Barn, Taos, Caramoor, Bowdoin, Kneisel Hall, and Music Academy of the West. In 2012, Julio was the youngest juror ever selected at the Fischhoff National Chamber Music Competition.

Originally from the San Francisco Bay Area, Julio received a bachelor of music degree with honors from the San Francisco Conservatory of Music, where he studied with Paul Hersh. He holds master's and doctor of musical arts degrees from the Juilliard School in New York City, where he studied with Jerome Lowenthal, Joseph Kalichstein, and Robert McDonald.



바이올리니스트 사라 장 사라 장, 7년 만에 리사이틀로 돌아오다

사라 장은 한국이 낳은 천재 음악가의 대명사였다. 4세에 바이올린에 입문하고 8세에 메타의 뉴욕 필과 협연했으며 10세 때인 1991년에 데뷔 앨범(<Debut>, EMI)을 녹음한 그는 그야말로 신동이었다. 사라 장, 곧 장영주는 한국 클래식계의 아이콘이 되었다. 그가 기라성 같은 지휘자 및 악단과 새 음반을 내놓을 때마다 팬들은 우리도 드디어 클래식 문화의 중심부에 당당히 들어서게 되었다는 뿌듯함을 느꼈다. 사라 장이 클래식 분야에서 이뤄낸 업적은 말하자면 박찬호, 박세리, 김연아의 경우와 비슷한 감동을 우리에게 주었다. 몇 사람의 천재를 통해 느끼는 민족적 자부심. 그것이 그동안 우리가 천재성을 누리는 하나의 방식이었고 그렇게 확인한 자부심은 그 자체로 좋은 영향력이 되었다. 90년대와 2000년대 우리 클래식계도 젊은 사라 장과 함께 성장했다.

그로부터 20여 년이 지났다. 그 옛된 얼굴로 신들린 기교를 보여주던 사라 장도 어느덧 마흔을 바라보고 있다. 그는 여전히 세계 최정상급의 비르투오소, 곧 초절기교를 지닌 스타 음악가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는 실내악 협연과 연구, 음악을 통한 교육, 사회 공헌 활동 등을 펼치며 화려한 스포트라이트에서 다소 뒤로 물러나 있다. 젊은이의 천재성과 기교를 넘어서는 묵연의 깊이를 음악에 담으려는 도정에 있는 게 아닐까. 한때 저 위대한 리스트가 피아니스트 활동에서 뒤로 물러나 괴테의 <파우스트>를 만나며 진정성의 세계를 탐구한 것처럼. 찰나와도 같은 기예로부터 보다 오래가는 ‘의미의 세계’로 나아가고 있는 게 아닐까. 그동안 양적으로 그럴듯하게 성장해온 우리는 이제 깊이에 목마르다. 음악의 심연을 향해 끊임없이 정진해온 사라 장은 우리의 깊이에 대한 목마름을 자신의 목마름으로 이해할 음악가다. 나이 어린 천재를 길러내는 것과 더불어 나이 지긋한 대가와 함께 멋스럽게 익어가는 것 또한 우리 문화계가 놓치지 말아야 할 한 걸음이기여, 이번 사라 장의 리사이틀은 과거의 흥분감과 다른 잔잔한 설렘으로 다가온다. 그러나 이 설렘은 분명 더 오래가는 잔향을 남길 것이다.

이번 리사이틀을 위해 사라 장은 그간 음반과 공연을 통해 선보인 작품들을 가려 뽑았다. 화려하게 현 위를 수놓는 초절기교에서부터 정갈하고 명상적인 심연의 악상까지, 역동적인 민속의 기운에서부터 우아하고 세련된 서정미까지, 사라 장의 이번 리사이틀에는 비르투오소가 줄 수 있는 순수 음악적 쾌감이 가득할 것이다. 동시에 사라 장의 이번 무대는 단순한 추억 이상의 의미가 될 것이다. 깊이와 성숙, 음악을 대하는 진지함이 널리 공유되는 값진 무대가 될 것이다.

고심한 흔적을 엿볼 수 있는 레퍼토리

이번 공연의 레퍼토리는 크게 두 가지 키워드로 압축될 수 있다. 원초적 민속성과 도회적 세련미라고 이름 붙여야 할까. 먼저 민속성을 전면에 내세운 작품들이 눈에 띈다. 바르톡의 <루마니아 민속 무곡>이나 라벨의 <치간>은 원래 동유럽이나 스페인의 집시 음악을 그 뿌리로 가진다. 바치니의 <고블린의 춤> 역시 이탈리아의 민속 춤곡에 빚지고 있는 작품이다. 민속성은 사실 서양 음악에 있어 중요한 자양분이었다. 계몽주의 이후 시민 계급이 성장하던 시기, 루소는 자연으로 돌아가라고 외쳤고, 이 울림을 이어받아 헤르더는 민요를 새로운 예술의 지향점으로 삼았다. 민요란 자연의 원초성이 그 땅에서 사는 인간의 삶 안에 담겨 생동하는 노래를 뜻했다. 이후 민요는 자연과 인간이 이어지는 장이요, 원초적인 총체성이 살아 있는 예술적 에너지의 보고로 받아들여졌다. 낭만주의 시대에도 민요는 여전히 각광받았다. 보통 사람들의 언어와 판타지를 지향하자는 것이 낭만주의의 핵심이었으므로 거기에 민요가 빠질 수 없었던 것이다. 민요는 민족주의 시대에 있어서도 여전히 중요했다. 오랜 시간 잔존했던 제국(특히 신성 로마 제국)이 해체되고 나폴레옹 전쟁으로 민족 정신의 각성이 일어나자 유럽 여러 나라의 사람들은 자기 나라, 자기 말이 담긴 민요에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인하기 시작했다. 요컨대 근대 이후 클래식 역사에서 민요는 사조나 나라와 관계없이 늘 예술의 소재가 되었던 것이다.

바이올린은 여전히 민속과 각별히 연결되어 있는 악기다. 소위 꺾꺾이로 불리는 피들에서 출발한 악기라는 점도 그렇지만, 가볍고 재빠르고 변화무쌍하며 다양한 목소리를 재현하는 이 악기는 다채로운 감정을 전하는 최고의 악기였다. 바르톡의 작품은 그러한 원초성을 가장 깔끔한 형태로 전하는 뛰어난 미니어처다. 원래는 비엘(피들)이나 목동피리로 연주하던 것을 채록해 바이올린과 피아노곡으로 바꾸었는데 민속의 기운이 짧은 시간에도 번뜩인다. 바치니의 <고블린의 춤> 또한 유사한 성격을 가진다. ‘요정의 론도’라는 부제가 붙어 있지만 거침없고 익살스런 움직임, 현란한 초절기교가 듣는 이들에게 더없는 즐거움을 준다.

그런데 우리는 라벨의 <치간>에서 민속성이 우아하게 조탁되어 새로운 차원을 획득하는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된다. 가장 이성적이고 도시 문화에 어울리는 이 프랑스 작곡가는 집시의 선율을 가져와 완전히 새롭게 창작한다. 헝가리인 리스트나 독일인 브람스와는 전혀 다른 감각이 넘실거린다. 직접 집시의 선율을 차용하지는 않았지만, 형식과 구조를 강조하는 이성적 아름다움 대신 변화와 의외성을 강조한다. 그 결과 라벨의 치간은 프랑스 음악의 도회적 세련미와 초고난도의 기교, 민속적 역동성을 포괄하게 되었다. 치간은 여러 상이한 개성들이 한데 혼합된 현대 사회의 혼종성을 가장 잘 구현한 예술적 사례다.

이번 리사이틀의 반대편에는 극히 세련된 감성 역시 위치하고 있다. 엘가의 대표작인 ‘사랑의 인사’는 단정한 서정이 잘 살아 있는 작품으로 유명하다. 한마디로 달콤한 곡이다. 작곡가가 약혼녀였던 캐롤린 엘리스 로버츠에게 약혼 선물로 연주까지 직접 해준 말 그대로의 ‘사랑의 인사’다. 하지만 한 사람에게만 전달되기에는 너무나 사랑스러웠던 나머지 오늘날 이 곡은 전 세계인을 향한 사랑 고백이 되었다. 이것이 이 곡의 빛나는 가치다.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는 애뜻한 마음이 전해지면 바이

올린은 마치 크림을 얹은 것 같은 부드러운 목소리를 낼 것이다. 드보르자크의 로망스 f단조 Op.11은 그의 서정성을 잘 들려주는 ‘원석’과도 같은 음악이다. 로망스(romance)란 원래 스페인이나 프랑스에서 자주 불렸던 이야기가 있는 노래를 뜻하지만 점점 자유로운 노래 형식(Liedform)으로 작곡된 서정적인 연주곡을 가리키는 말로 전용되기 시작했다. 서정성과 내러티브, 곧 어떤 음악적 사건이 더 두드러지되 기본적인 서정성을 잃지 않는 것이 로망스의 특성인데 드보르자크의 로망스는 여기에 꼭 부합한다. 보헤미안 특유의 애수와 뛰어난 조화의 감각이 론도풍 악상에서 빛을 발해 듣는 이를 더없이 매료한다.

프랑크의 소나타는 이번 리사이틀에서 가장 크고 가장 교묘하며 가장 우아한 작품이다. 프랑크는 결코 다작을 하는 작곡가가 아니었지만 남기는 작품마다 진실된 음악적 깊이를 전해주었는데, 특히 바이올린 소나타를 위시한 만년의 작품들은 영원히 음악사에 남을 만한 걸작이었다. 본래 독일 고전주의와 낭만주의를 지나며 소나타는 대립되는 두 주제의 경쟁과 조합, 그리고 이를 통한 발전을 그 기본으로 하는 장르로 여겨졌다. 그러나 프랑크는 이러한 구조적인 음악 대신 보다 유기체적인 자연스러움을 지닌 기악 음악을 구상했고, 그 결과 한 주제가 여러 악장에서 순환하듯이 활용되는 이른바 ‘순환 형식’을 고안해냈다. 템포와 조성, 그 밖의 음악적 맥락에 따라 변형되는 ‘순환 주제’는 자연스럽게 소나타 각 악장들의 전통적 도식을 허물어 음악을 하나의 유기체로 만든다. 그야말로 단순하면서도 고상하고 격조 높은 아름다움이다. 요컨대 이번 리사이틀은 민속성과 세련미 사이의 다채로운 스펙트럼이다. 바이올린이 낼 수 있는 가장 다양한 목소리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최고의 기회다.

오랜 목마름을 해소시켜줄 7년 만의 리사이틀

오랜 목마름이었다. 그만큼 기대가 차올라 있다. 그러나 그런 기대는 이번 리사이틀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짧은 날의 반짝임을 지나 세월과 함께 멋스럽게 자라가는 음악가. 우리는 그러한 깊이와 성숙의 음악을 듣고 싶은 것이다. 천재의 벼락과 같은 성공 스토리 그 이상의 감동을 향해 사라 장의 음악이 나아가는 것을 보고 싶은 것이다.

세기의 거장들이 사랑하고 아끼고 소중하게 여겼던 보물 같은 연주자, 사라 장을 드디어 만난다. 함께 무대에 오르는 피아니스트 홀리오 엘리잘데는 피아니스트로서의 입지는 물론 예술행정가, 교육자, 실내악 연주자, 올림픽 뮤직 페스티벌의 예술감독까지 역임한 다재다능한 아티스트다. 이차크 펠만, 스티븐 허프, 크로노스 콰르텟, 타카치 콰르텟, 줄리아드 콰르텟 등과도 여러 차례 호흡을 맞춰온 최고의 파트너다.

글 | 나성인 (음악 평론가)

위 글은 <클럽 발코니 Club BALCONY> 94호에서 전제한 기사입니다.





감동의 무대가 있는 곳에 크레디아가 있습니다.



핑크퐁 클래식 나라

5.1(FRI) - 5.2(SAT) 롯데콘서트홀

손열음 피아노 리사이틀

5.13(WED)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리처드 용재 오닐 리사이틀

5.20(WED)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디즈니 인 콘서트

5.23(SAT) - 5.24(SUN)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유키 구라모토 콘서트

5.28(THU)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머레이 페라이어 &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인 더 필즈

6.7(SUN)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에스메 콰르텟 리사이틀

6.9(TUE) 롯데콘서트홀

조성진 피아노 리사이틀

7.7(TUE) - 7.8(WED)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정명훈 & 원 코리아 오케스트라

8.23(SUN)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이상 트리오 <더 트라이어드>

8.29(SAT)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클라라 주미 강 & 손열음 듀오

9.4(FRI)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미샤 마이스키 첼로 리사이틀

9.22(TUE)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임동혁 피아노 리사이틀

10.11(SUN) 롯데콘서트홀

요요 마 & 실크로드 앙상블

11.6(FRI) 롯데콘서트홀

이차크 필만 바이올린 리사이틀

11.17(TUE)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소프라노 박혜상 리사이틀

11.20(FRI) 롯데콘서트홀

백혜선 피아노 리사이틀

11.26(THU)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크리스마스 뮤직 페스티벌

12.24(THU) - 12.26(SAT)

롯데콘서트홀

술술클래식: 더 콘서트

3.14(SAT) 6.13(SAT) 9.12(SAT) 12.5(SAT)

롯데콘서트홀

빈소년 합창단

신년음악회

*Vienna Boys Choir
New Year's
Concert*



photo by Lukes Brack

2020. 1. 18 SAT 5PM & 1. 19 SUN 5PM 롯데콘서트홀

합창지휘 | 마놀로 까닌 합창 | 빈 소년 합창단 오르간 | 박소현
샤르팡티에 바빌론 강가에서, 피아졸라 리베르탱고, 슈트라우스 2세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 왈츠
R석 12만원 | S석 10만원 | A석 7만원 | B석 5만원



2019 글로벌고객만족역량 조사
항공여객운송서비스 부문 1위 대한항공

CLARK

대자연이 즐거움을 더해주는 곳, 클락을 만나다

대한항공 필리핀 클락 매일 운항
클락의 모든 즐거움, 아침 출발로 여유롭게 누리세요



www.koreanair.com



사라 장 바이올린 리사이틀

피아노, 훌리오 엘리잘데

CREDIA

이 프로그램은 Club BALCONY 후원회원에게 무료로 제공됩니다.
(단, www.clubbalcony.com에서 공연을 예매한 후원회에 한함)

www.credia.co.kr

CREDIA MUSIC & ARTISTS

CREDIA
INTERNATIONAL

CREDIA
ENTERTAINMENT





CREDIA에 의해 창작된 프로그램북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3.0 Unported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CREDIA의 저작물에 기초
이 라이선스의 범위를 넘는 이용허락은 CREDIA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본 온라인 프로그램북 서비스는 클럽발코니닷컴에서 제공됩니다.

This e-book is exclusively provided by Club BALCONY.

www.clubbalcony.com